

한·중 데이터로 살펴본 직장 내 CCTV 도입 신뢰에 대한 일본 과거사의 점화효과 연구: 보안 취약성 지각의 조절된 매개 모형

최성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경영학부 부교수

장리팡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김미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박종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Understanding the Japanese History Problem on Trust in Technology Adoption of Workplace Surveillance Camera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in Korean and Chinese Context

Sungwon Choia^a, Lifang Changb^b, Mijeong Kimc^c, Jonghyun Parkd^d

^a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South Korea

^b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outh Korea

^c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outh Korea

^d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23, Revised 15 December 2023, Accepted 22 December 2023

Abstract

Purpose - In the Korean and Chinese social landscape, it is vital to appreciate the significance of the Japanese history problem.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perception of the Japanese history problem affects decisions regarding technology adoption in organizations by comparing South Korea and China.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study involved 305 Korean and 379 Chinese participants who responded to scenarios and surveys regarding the adoption of workplace surveillance cameras supplied by a Japanese company.

Findings - Using a moderated mediation model based on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MT), we found that past experiences of privacy invasion significantly reduced trust in the adoption of surveillance cameras at work. This relationship was mediated by respondents' perceptions of security vulnerability. The current study, however, did not confirm an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the Japanese history problem priming on trust in the adoption of workplace surveillance cameras.

Research implications - This suggests that the Japanese history problem may have a limited impact on organizational technology adoption decisions, different from the political consumerism behavior driven by public anti-Japanese affectivity. The current study reaffirms the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PMT and provides both theoretical insights and practical recommendations.

Keywords: Japanese History Problem, Cross-Cultural Study Priming Effect,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MT), Security of Surveillance Cameras

JEL Classifications: C12, C83, D40, L15

^a First Author and Corresponding Author, E-mail: swchoi33@yonsei.ac.kr

^b Co-author, E-mail: bekyoc@yonsei.ac.kr

^c Co-author, E-mail: innpeoplecompany@naver.com

^d Co-author, E-mail: hyunart00@korea.kr

© 2023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일본 과거사 이슈는 한·일 및 중·일 관계에 가로놓인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실타래 중 하나이다(장기영, 2017; 허수동, 2015).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야스쿠니 참배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영토 분쟁 등 일본 제국주의 과거사에 얽힌 이슈들은 단순 역사 논란 이상의 의미를 갖는 현시대의 심각한 현안과 갈등을 잉태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Le & Zhang, 2022; Reynolds & Kang, 2023). 일본 상품에 대한 대규모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 2019년 한국의 노재팬 운동이나(이선민과 전승우, 2022), 2012년 센카쿠 열도 충돌로 촉발된 중국의 대규모 반일 시위(Wallace & Weiss, 2015) 등의 사례는 그러한 골 깊은 국민감정이 폭발적으로 표출된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간 갈등이나 정치적 이슈에 있어 방송 및 SNS 등을 통해 촉발된 부정적 감정은 대중 응징 행태로서의 상품 거부 및 특정 기업 불매라는 정치적 소비(political consumerism)로 전이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Neilson, 2010). 국제적 사례로, 미국 호텔업계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전쟁 직후 우크라이나에 동조하고 러시아에 반발하는 정서를 가진 개인들에게서 우크라이나 관련 여행 상품의 구매 의도 증가 및 러시아 관련 호텔 방문 감소가 관찰되었으며(Josiassen et al., 2023), 영국과 그리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포커스 그룹 연구에서 정치적 이유로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혹은 불매를 고려한다는 청년층의 소비 성향이 보고되었고(Kyroglou & Henn, 2022), 인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중국과의 국경 분쟁 이후 상품의 메이드인 차이나 여부를 보다 더 면밀히 체크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Sengupta, 2022).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노재팬 운동, 중국의 일본 제품 거부 운동 또한 이러한 정치적 소비 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Hyun et al., 2014; Wang, 2022).

하지만 일본 과거사 이슈가 갖는 이러한 정치적 촉발 효과가 과연 개인 소비자 수준을 넘어 조직 내 의사결정과 관련된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지금까지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 과거사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국제정치적 함의에 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한다(김용복, 2013; 이원덕, 2005; Stockmann, 2010; Zhao & Xiaoyi, 2021). 한·일 및 중·일 과거사 이슈에 대한 역사적 책임 규명, 아태 지역에서의 국제적 영향 분석, 진정한 사죄와 성찰 방안의 모색 등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과거사 문제가 과연 개인의 직장 생활과 조직 내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에 있어 한·중 사이에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오늘날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 및 직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조직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Ravid et al., 2023). 작업장 내 실시간 사고 예측 및 공정 관제를 가능케 하는 사물 인터넷, 위치 정보 기술을 접목한 종업원 스마트 근태 관리 app, 기업 내부망 접속에 대한 보안 모니터링, 인공지능 기반 안면 인식 출입관리 시스템 등은 이러한 흐름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직장 내 CCTV(폐쇄회로 TV)를 통해 촬영된 영상 데이터는 수집 즉시 반영구적으로 네트워크상에 저장되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공적 및 사적 행동 영역 전반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추적하며 심지어 지능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발전 수준에 이르고 있다(Abbas et al, 2020; Ravid et al., 2023; Yang et al., 2023). 현대에 있어 CCTV 기술에 대해서는 직장 내에서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고 업무 환경 개선과 업장 내 분쟁 조정에 공헌한다는 긍정적 시각이 있는 반면, 조직 구성원을 계속적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만들고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및 보안 취약성 위협에 직원들을 불가피하게 노출시킨다는 부정적 시각 또한 존재한다(Thiel et al., 2023; Warnick, 2007). 이러한 연유로 조직 내 정보기술 도입 의사결정에 있어 공급업체의 법률 준수 및 첨단 기술력 확보뿐만 아니라 해당 공급자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정서적 신뢰감과 수용 태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Doberstein et al., 2022; Martin & Freeman, 2003). 더욱이 오늘날 많은 정보기술 공급업체가 그 자체로 해외 기업이거나 혹은 주요 시설 및 핵심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애국주의 소비 정서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조직 내 기술 도입 의사결정이 영향 받는지를 진지하게 고찰하려는 연구의 필요성과 그 실무적 가치는 충분하다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국적 기업이 공급하는 CCTV 도입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 실험을 통해, 기술 도입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신뢰감이 일본 과거사 이슈에 노출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진일보하여 이러한 정서의 점화효과(priming effect)가 한국과 중국 간에 같은 방식(혹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실증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본 과거사 이슈와 관련해 한·중 사회 내에 형성된 부정적 정서의 특질과 파급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그러한 부정적 정서가 양국 조직 내 기술 도입 의사결정에 갖는 시사점을 다루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 보호동기이론과 CCTV 도입 신뢰

정보보호와 관련된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MT)에 의하면 일정 수준의 위협(threat)에 자극받은 개인은 해당 위협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통해 자신이 노출된 취약성을 지각하게(vulnerability perception)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 변화로서의 자발적 행동 동기(Protection Motivation)를 보이게 된다(Ifinedo, 2012; Lee, 2011; Rogers, 1975). 예컨대 백신 프로그램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스마트폰 해킹으로 큰 피해를 당했다는 친구의 경험담을 접한 사람은, 자신의 스마트폰 또한 개인정보 탈취와 해킹에 뚫릴 수 있다는 보안 취약성을 새삼 인지하게 되고, 그 결과 백신 업데이트나 비밀번호 변경 등을 더 자주 행하려는 동기가 발생하게 된다. 즉 보호동기이론의 기본 틀은 위협 자극에서 인지적 평가를 거쳐 반응 보호 행동으로 이어지는 인지 과정 형태의 매개 모형이라 할 수 있다(김상현과 박현선, 2013).

보호동기이론과 관련된 연구는 기술 도입(technology adoption)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 건강, 개인정보와 관련된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Bansal et al., 2015; Dinev & Hart, 2006; Floyd et al., 2000; Zhou et al., 202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OVID-19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감염 취약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개인의 보호 동기가 상승하였고(장두영과 이충기, 2020), 암호화폐 투자 시 거래 플랫폼의 신뢰와 보안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었으며(장영일과 정유수, 2018),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사용에 있어 보안성이 높다고 인식될수록 해당 기술을 믿고 사용하려는 소비자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제안되었고(김종기와 김상희, 2013), 사생활 침해 경험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온라인 포털 사용자들의 정보 불안을 증가시켰다(고형석, 2003). 또한 온라인 뱅킹 가입(이용규, 2003), 온라인 전자결제 이용(나윤규, 2010), 핀테크 앱 활용(양승호 등, 2016) 등에 있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안상 우려가 적을수록 개인들의 사용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동기이론을 직장 내 CCTV 도입 상황에 적용하면, 과거 CCTV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받은 경험이 있는 개인의 경우, 평소 프라이버시 위협을 보다 민감하고 중요하게 인식하며 나아가 자신이 또 다른 정보 침해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CCTV로 인한 정보 침해 경험은 개인이 인지한 CCTV에 대한 보안 취약성 지각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안 취약성 지각이란 해당 정보기술이 사용 대상을 정보 침해에 얼마나 노출시키는지 혹은 해당 정보기술이 내부부의 위협에 얼마나 취약한가에 대한 우려를 의미한다(Polatoglu & Ekin, 2001). 즉 CCTV를 통해 사적 활동이 과도하게 촬영되고 저장된 개인정보가 외부자에게 쉽사리 유출되거나 내부 관리자에 의해 부적절하게 오용될 수 있다 느끼는 경우 그 사람은 CCTV에 대해 보안 취약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보안 취약성에 대한 지각은 CCTV 도입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신뢰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동기이론에서 정보 보안은 기술 신뢰 형성의 핵심적 요소이다(Herath & Rao, 2009; McCaughey et al., 2017; Wong & Mo, 2019). 신뢰된 상대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바탕으로 위협을 감수하겠다는 자발적 태도로 정의된다(Schoorman et al., 2007). CCTV 도입 상황에서 신뢰는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 또는 운영진이 해당 시스템과 이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사생활 보호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소부터 CCTV에 대해 보안이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는 개인이라면,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조직에서 CCTV를 도입하거나 증설하고자 할 때 상대적으로 강한 불신과 염려를 느낄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면 CCTV로 인한 정보 침해 경험은 CCTV에 대한 보안 취약성 지각을 야기하고, 이렇게 야기된 보안 취약성에 대한 지각은 다시 직장 내 CCTV 도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 내용을 아래 가설로 정리하였다.

- H1** CCTV로 인한 정보 침해 경험은 CCTV에 대한 보안 취약성 지각을 증가 시킬 것이다.
- H2** CCTV에 대한 보안 취약성 지각은 CCTV 도입 신뢰를 저하 시킬 것이다.
- H3** CCTV에 대한 보안 취약성 지각은 정보 침해 경험과 CCTV 도입 신뢰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 조절변수로서의 과거사 이슈의 점화효과

기술 도입 상황에서 보호동기이론은 개인의 태도 변화와 동기 형성 과정에 있어 사회적 요인에 의한 영향력을 상정하고 있다(Granic & Marangunic, 2019; Harath & Rao, 2009; Lee, 2011; McCaughey et al., 2017). 동료 그룹의 영향, 주관적 규범, 기업 문화, 언론 및 SNS 등과 같은 사회적 영향은 암묵적 동조 압력을 형성해 해당 기술에 관해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갖게 할 수도 역으로 불신하고 꺼리는 태도를 촉발시킬 수도 있다(Lai, 2017; Patel & Patel, 2018; Venkatesh & Davis, 2000). 선행 연구에 따르면, 헬스케어 앱 선택에 SNS 등 사회적 영향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조재희, 2014), 모바일 기기 구매(손승혜 등, 2011) 및 모바일 콘텐츠 구독(이정기 등, 2012)에 동료 집단의 동조 압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웹 브라우저 채택 시 타인들은 이렇게 할 것이라 스스로 추측하고 있는 주관적 규범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규 등, 2009).

이러한 사회적 영향은 각 개인이 놓인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과 정도로 촉발되고 발현될 수 있다(Dhagarra et al., 2020; Ratten, 2015). 점화효과(priming effect)는 선행 자극이 뒤이어 나타나는 반응, 태도,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현상을 일컫는다(Bargh et al., 1996; Yi, 1990). 비근한 예로서 폭력, 범죄, 흉기 난동과 같은 단어에 노출된 직후에는 호신용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에서 폭력, 범죄와 같은 단어들이 촉발 인자 혹은 점화 자극이라 지칭되는 프라이밍(priming)이다. 인지적 관점에서, 프라이밍 효과는 개인의 기억, 감정, 지식 등을 환기하여 특정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속하고 집중하도록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활성화된 인지 과정은 뒤따르는 지각과 평가에 의식적(혹은 무의식적)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Hermans et al., 2001; Hwang et al., 2023; Minton et al.,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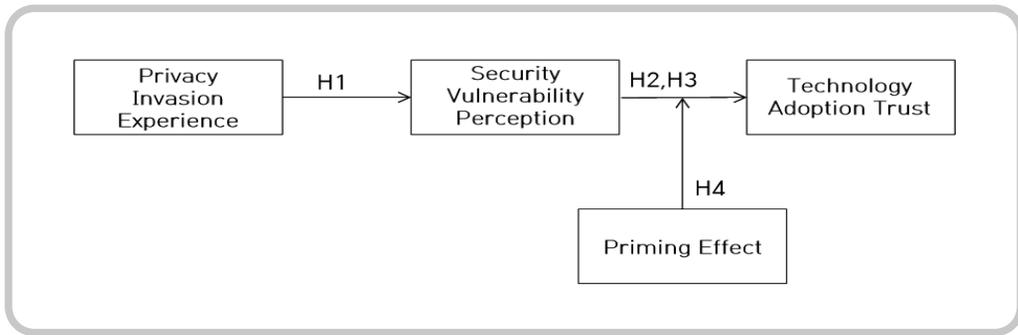
점화효과는 정치, 방송, 마케팅 분야 등에 걸쳐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Bryan et al., 2009; Minton et al., 2017; Radel et al., 2009). 선행 연구에 의하면, 투표자의 선택에 미디어의 기사 논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한현 등, 2004), 비판적 기술과 이미지에 프라이밍된 그룹은 해당 정책에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조은희와 김성겸, 2013). 또한 휴대폰 분실 가능성을 환기하는 프라이밍에 노출된 개인의 경우 보안 위험에 민감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 핀테크 앱에 대한 유보적 태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연구되었고(박용완과 김희영, 2016) 지위 추구 동기와 애국심의 프라이밍 효과는 상호작용을 통해 소비자의 애국적 소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보희와 김한구, 2016).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 CCTV 도입 신뢰에 있어 일본 과거사 이슈의 점화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안 취약성 지각과 CCTV 도입 신뢰 사이의 관계가 일본 과거사 프라이밍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테스트하고자 하였다. 통상적으로 일본 과거사 이슈와 같은 애국적 프라이밍에 노출됐을 때 개인은 일본 제품이나 일본 업체의 서비스를 불신하고 거부하는 정치적 소비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Yoo & Lee, 2016). 그러나 일반 소비자 행동이 아닌 조직 내 의사 결정과 같은 맥락에서도 이러한 불신 촉발 효과가 여전히 작동되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색적인 접근을 채택하였다. 위 논의를 다음 가설로 요약하였으며 연구 모델은 〈Figure 1〉에 도식화하였다.

H4 과거사 프라이밍 효과는 CCTV에 대한 보안 취약성 지각과 CCTV 도입 신뢰 사이의 부적(-)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CCTV 보안 취약성 → CCTV 도입 신뢰의 부적 관계가 과거사 프라이밍 그룹에서 심화될 것이다.

Fig. 1. Study Model



Ⅲ. 연구방법: 한국 샘플

1. 자료 수집

한국 데이터는 2023년 5월경 약 20일 동안 수집되었고, 인터넷 설문을 통한 횡단연구 방법이 사용되었다.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와 각종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 링크를 제공하여 자발적 참여자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도합 867명의 방문자 중 309명이 설문을 완료하여 응답률은 약 36%였으며, 분석에서 삭제된 불성실 응답 등을 고려한 최종 한국 데이터 샘플 사이즈는 305명이다. 이 중 149명은 과거사 프라이밍 그룹에 속하고 156명은 통제 그룹에 속했다. 설문에는 같은 비율의 남녀가 참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약 37세였다.

2. 연구 절차

설문 참여자들은 중복 없이 과거사 프라이밍 시나리오 또는 통제 시나리오 중 하나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두 그룹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a) 그들이 서울에 위치한 화장품 유통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상황이 주어졌고, (b) 해당 회사에서 공용 업무 공간에 CCTV를 설치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를 일본계 업체가 운영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주어졌다. 이어서 (c) 과거사 프라이밍 그룹은 다음과 같은 일본 과거사 이슈에 대한 기술(script) 프라이밍을 받았다. 첫째 일본이 한국을 불법으로 식민 지배한 데에 대한 분명한 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위안부 등 전쟁 범죄에 대한 일본의 책임 부인, 셋째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참배, 넷째 독도가 일본 영토에 속한다는 주장. 반면에 통제 그룹은,

과거사와 관련된 (c)항의 기술 프라이밍을 받지 않았으며 (a)와 (b)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시나리오를 제시받았다. 시나리오 노출 후 참여자들에게 일본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는지 여부를 묻는 조작 점검 (manipulation check) 아이템이 주어졌으며(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조작 점검 결과 프라이밍 그룹(M = 3.18)과 통제 그룹(M = 2.69)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1$).

3. 측정 도구

모든 문항 측정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설문 문항을 Appendix에 별도 수록했다.

- 기술 도입 신뢰: 직장 내 공용 공간 CCTV 도입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신뢰는 김병수와 김대길(2019)의 정보매체 신뢰 3문항을 본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샘플 문항은 ‘나는 직장 내 CCTV 기록 관리에 있어 선정된 공급 업체를 신뢰한다’이며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86이었다.
- 정보 침해 경험: 개인정보 침해 경험은 김상현과 박현선(2013)의 정보침해 경험 3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샘플 문항은 ‘과거에 CCTV로 인해 나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이며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91이었다.
- 보안 취약성 지각: 개인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CCTV 보안 취약성에 대한 인지는 김상현과 박현선(2013)의 정보 취약성 3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샘플 문항은 ‘나는 평소 직장 밖에서도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를 느끼고 있다’이며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88이었다.
- 통제변수: 분석에 있어 연령 및 성별 변수를 통제하였다.

4. 데이터 처리

SPSS 23을 활용해 데이터 처리를 진행했다. 우선 설문의 개념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인 분석과 직각 회전 방식 중 하나인 varimax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1>에 표시된 대로 고유값 1을 초과하는 요인이 도합 3개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전체 데이터 변량의 약 73%를 설명하였다. 요인들은 기술 도입 신뢰, 정보 침해 경험, 보안 취약성 인식의 3개 요인으로 그룹지어졌다. 모든 항목은 적절한 공통성 계수를 보였으며 항목 간 중복적재 문제 측면에서도 양호한 결과를 보여, 한국 설문 데이터의 개념 타당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Table 1. Factor Analysis: Korean Sample

	F 1	F 2	F 3	Communality
	4.01	2.03	1.30	
TAT1	-.03	-.11	.70	.50
TAT2	-.10	-.04	.90	.82
TAT3	-.16	-.08	.83	.72
SVP1	.26	.74	-.04	.61
SVP2	.16	.98	-.07	.95
SVP3	.29	.70	-.17	.61
PIE1	.81	.26	-.11	.74
PIE2	.92	.24	-.07	.91
PIE3	.79	.21	-.13	.69

Principal Axis Factoring, Varimax Rotation, KMO = .77, Bartlett's test $p < .01$.

Technology Adoption Trust (TAT), Privacy Invasion Experience (PIE), Security Vulnerability Perception (SVP).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Korean Sample

	M	SD	1	2	3
1. Technology Adoption Trust	3.30	.76	(.86)		
2. Privacy Invasion Experience	1.73	.77	-.23**	(.91)	
3. Security Vulnerability Perception	2.78	.91	-.21**	.49**	(.88)
4. Sex	.50	-	-.07	-.00	-.05
5. Age	36.72	11.76	-.17**	.14*	.09

N = 305, * p < .05, ** p < .01.

IV. 연구결과: 한국 샘플

〈Table 2〉에 기초 통계량, 상관 계수, 크론바흐 알파 계수 등을 정리하였다. 분석에는 구조방정식 프로그램인 Mplus를 사용하였다. 분석 시 연령과 성별을 통제하였다. 먼저 측정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측정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 = 88.473, df = 43, p < .01, RMSEA = .059, CFI = .974, SRMR = .058).

위 CFA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조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chi-square = 85.984, df = 41, p < .01, RMSEA = .060, CFI = .974, SRMR = .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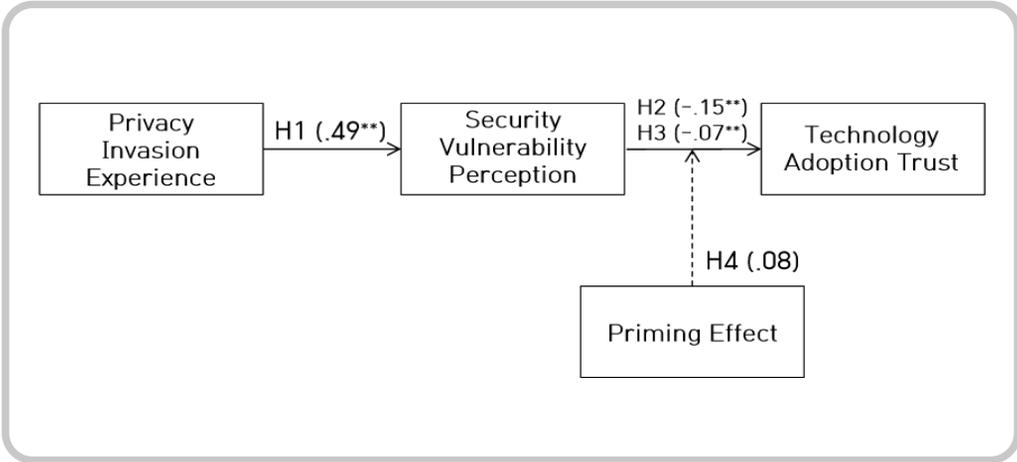
Figure 2에 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설 1은 CCTV로 인한 정보 침해 경험이 개인이 지각한 CCTV 보안 취약성을 증가 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조 모형 분석 결과, CCTV로 인한 정보 침해 경험은 CCTV 보안 취약성을 유의하게 증가시켜(b = .49, p < .01) 가설 1은 확인되었다. 가설 2는 CCTV 보안 취약성 지각이 CCTV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킬 것으로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CCTV 보안 취약성 지각은 CCTV에 대한 구성원들의 유의한 신뢰도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b = -.15, p < .01) 가설 2는 확인되었다. 가설 3은 보안 취약성 지각이 정보 침해 경험과 신뢰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 침해 경험 → 보안 취약성 지각 → 기술 도입 신뢰 링크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 = -.07, p < .01) 매개 효과를 상정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과거사 프라이밍이 상기의 매개 효과를 조절하는지에 대한 가설 4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latent moderation structural equations(LMS)를 수행하였다. 상기 구조 모형에 과거사 프라이밍과 보안 취약성의 상호작용을 잠재 수준에 추가하였다(과거사 프라이밍 * 보안 취약성 지각). LMS 방식의 구조방정식은 측정치에 대한 센터링이나 별도의 변수 간 상호작용 값 환산이 불필요하며 보다 엄밀한 잠재 수준에서의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는 특징점을 갖는다(Maslowky et al., 2015; Ping, 1996). 이는 잠재 수준의 상호작용이 측정치 수준에서 평균, 분산 등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잠재 상호작용에 의해 측정 모형 자체의 적합성이 영향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Klein & Moosbrugger, 2000; Little et al., 2006). 따라서 LMS 결과의 해석은 전체 모형 적합도를 추종하지 않고 각 상호작용의 유의도 테스트를 통해 수행되어진다(Maslowky et al., 2015).

과거사 프라이밍의 조절효과를 LMS 방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안됐던 조절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보안 취약성 인식과 CCTV 도입 신뢰 사이의 관계는 과거사 프라이밍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아(b = .08, p = .47)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요약하면, 직장 내 CCTV에 대한 구성원들의 기술 도입 신뢰는 과거 CCTV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또한 평소 CCTV의 보안이 취약하다고 인식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구성원이 지각한 보안 취약성은 CCTV로 인한 정보 침해 경험의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사 프라이밍으로 인한 점화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즉, 과거사 프라이밍은 CCTV 도입에 있어 지각된 보안 취약성에 의한 신뢰감 저하 현상을 심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Fig. 2. SEM Results: Korean Sample



V. 연구방법: 중국 샘플

1. 자료 수집

중국 데이터 수집은 한국 데이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한국 대학들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와 중국 현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설문 목적과 링크를 게시하여 자발적 참여자로부터 응답을 수집했다. 도합 1067명이 온라인 설문 사이트를 방문하였고 그 중 381명이 설문을 완료하여 응답률은 약 36%였다. 불성실 응답 등을 제외한 중국 샘플의 최종 사이즈는 379명이다. 이 중 과거사 프라이밍 그룹에 188명 통제 그룹에 191명이 속했다. 약 54%가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6세였다.

2. 연구 절차

연구 절차는 한국 설문에서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었으며 설문 언어는 중국어로 진행되었다. 설문 참여자들은 과거사 프라이밍 그룹 시나리오 또는 통제 그룹 시나리오 중 하나를 중복 없이 무작위로 배정받았다. 두 그룹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a) 그들이 상하이에 위치한 화장품 유통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상황이 주어졌고, (b) 해당 회사에서 공용 업무 공간에 CCTV를 설치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를 일본계 업체가 운영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주어졌다. 이어서 (c) 과거사 프라이밍 그룹은 다음과 같은 일본 과거사 이슈에 대한 기술(script) 프라이밍을 받았다. 첫째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데에 대한 분명한 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것, 둘째 난징 대학살을 비롯한 전쟁 범죄에 대한 일본의 책임 부인, 셋째 일본 정치가들의 야스쿠니 참배, 넷째 일본의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 반면 통제 그룹은, 과거사와 관련된 (c)항의 기술 프라이밍을 받지 않았으며 (a)와 (b)항에 대해서는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받았다. 한국 설문에서와 동일하게 각 시나리오 노출 뒤 응답자들이 일본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조작 점검 아이템이 주어졌으며, 조작 점검 결과 프라이밍 그룹(M = 3.79)과 통제 그룹(M = 3.25)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1).

3. 측정 도구

중국 설문은 한국 설문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문항들의 동질성을 보장하기 위해 번역과 역번역 프로세스를 거쳤다(Glidden-Tracey & Greenwood, 1997). 한국어와 중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저자 중 한 명이 설문과 지문을 중국어로 번역하였고, 또 다른 양쪽 언어 능통자가 중국어 설문과 지문을 한국어로 역번역 하였다. 이후 저자 전원이 역번역된 내용과 원래의 한국어 설문을 비교하여 내용의 일관성과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저자들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시 토의를 거쳐 의견이 합치될 때까지 위 과정을 계속하였다.

측정 척도로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각 측정 변수들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기술 도입 신뢰 .81, 정보 침해 경험 .92, 보안 취약성 지각 .86이었다. 연령 및 성별을 통제 변수로 사용했다.

4. 데이터 처리

중국 데이터에 대한 처리 또한 한국 데이터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였다. 주요인 분석 및 직각 회전 방식인 varimax를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유값 1을 초과하는 요인이 3개 도출되었으며, 해당 3 요인은 전체 데이터 변량의 약 79%를 설명하였다. <Table 3>에 나타난 대로 요인들은 기술 도입 신뢰, 정보 침해 경험, 보안 취약성 지각의 3개 요인으로 그룹화 되었다. 모든 항목들은 공통성 및 중복적재 측면에서 양호한 결과값을 나타내어 중국 설문 데이터의 개념 타당성은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Table 3. Factor Analysis: Chinese Sample

	F 1	F 2	F 3	Communality
	3.43	2.24	1.45	
TAT1	.06	-.11	.63	.51
TAT2	-.06	-.12	.79	.65
TAT3	-.02	-.08	.88	.78
SVP1	.17	.77	-.11	.64
SVP2	.15	.83	-.09	.72
SVP3	.15	.78	-.16	.66
PIE1	.88	.20	.03	.82
PIE2	.94	.17	.01	.92
PIE3	.79	.13	-.03	.64

Principal Axis Factoring, Varimax Rotation, KMO = .75, Bartlett's Test $p < .01$.

Technology Adoption Trust (TAT), Privacy Invasion Experience (PIE), Security Vulnerability Perception (SVP).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Chinese Sample

	M	SD	1	2	3
1. Technology Adoption Trust	3.23	.79	(.81)		
2. Privacy Invasion Experience	2.56	1.04	-.21**	(.92)	
3. Security Vulnerability Perception	3.43	.85	-.24**	.33**	(.86)
4. Sex	.46	-	-.11*	.11*	.06
5. Age	25.96	5.43	-.11*	.19**	.08

N = 379, * $p < .05$, ** $p < .01$.

VI. 중국 데이터: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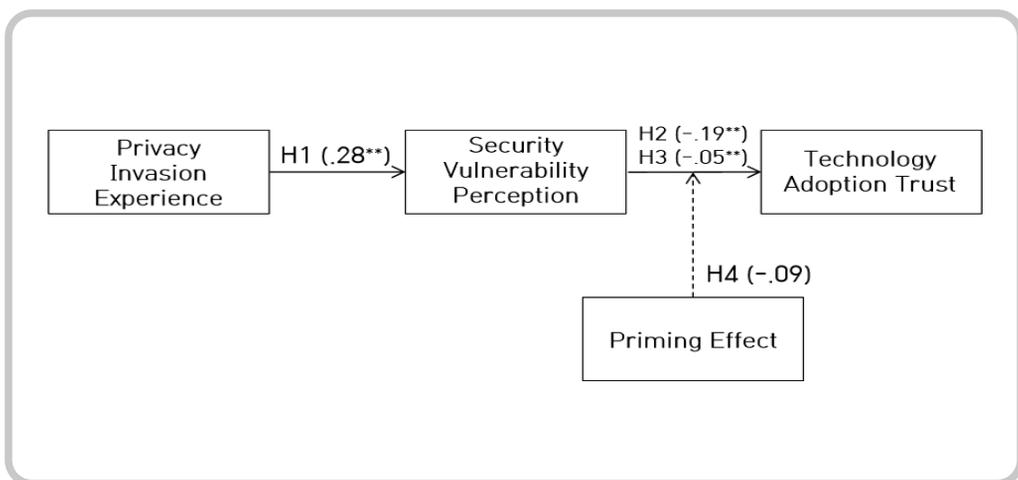
〈Table 4〉에 상관 계수 및 기초 통계량 등을 요약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분석 결과, CFA의 모형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chi-square = 81.095, df = 43, $p < .01$, RMSEA = .048, CFI = .980, SRMR = .056). 위 CFA를 바탕으로 구조 모형을 분석하였다. 해당 구조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는 양호하다 평가된다(chi-square = 73.940, df = 41, $p < .01$, RMSEA = .046, CFI = .983, SRMR = .051). 한국 데이터에서와 동일하게 연령과 성별을 SEM 분석 시 통제하였다.

Figure 3에 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설 1은 CCTV로 인한 정보 침해 경험이 개인이 지각한 CCTV 보안 취약성을 증가 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CCTV로 인한 정보 침해의 경험은 지각된 CCTV 보안 취약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켜($b = .28, p < .01$)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가설 2는 CCTV 보안 취약성 지각이 CCTV에 대한 신뢰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보안 취약성은 CCTV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유의한 신뢰도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b = -.19, p < .01$)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가설 3은 보안 취약성의 지각이 정보 침해 경험과 신뢰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 침해 경험 → 보안 취약성 지각 → 기술 도입 신뢰 링크는 유의한 것으로 드러나($b = -.05, p < .01$)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상기의 매개 효과가 과거사 프라이밍에 의해 조절되는지 여부를 LMS 방식을 통해 테스트하였다. 잠재 변수 차원에서 보안 취약성과 과거사 프라이밍의 상호작용 효과가 구조 모형에 추가되었다. 분석 결과 가설 4에서 제안됐던 조절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보안 취약성 지각과 CCTV 도입 신뢰 사이의 관계는 과거사 프라이밍에 의해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아($b = -.09, p = .43$)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요약하면 한국 데이터 분석과 유사하게 중국 데이터를 통한 분석에서도, 직장 내 CCTV 도입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는 과거에 그들이 CCTV로 인한 정보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경우 감소하였다. 또한 이 관계는 개인이 지각한 CCTV 보안 취약성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데이터를 통해서도 과거사 프라이밍의 점화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일본 과거사에 대한 프라이밍은 보안 취약성 지각에 의한 CCTV 신뢰감 저하 현상을 별달리 심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Fig. 3. SEM Results: Chinese Sample



VII. 논의 및 결론

1. 이론적 시사점

정리하면, 본 연구는 한·중 총 684명에 표본에 대한 시나리오 실험을 통해 일본 과거사 이슈가 직장 내 기술 도입 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절된 매개 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서 과거사 이슈에 의한 프라이밍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보호동기모형은 한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서 지지되었다. CCTV 도입에 대한 신뢰는 과거 CCTV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 감소하며 이 효과는 CCTV의 보안 취약성 지각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기술 도입에 있어 일본 과거사 이슈의 점화효과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 표본 모두에서 그러한 점화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양국 사회의 일본 제품 거부 운동 등에서 드러나는 선명한 정치 참여적 소비 행태와는 결을 달리하는 결과로 보인다(Hyun et al., 2014 ;Wang, 2022). 한 가지 해석은, CCTV와 같은 현대적 기술 도입 맥락에서 과거사 이슈는 참여자들에게 인지적/감정적으로 다소 거리감이 있는 소재였을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활용된 기술 프라이밍의 호소력이 참여자들의 정치적 소비 행태를 촉발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TV나 SNS 영상 플랫폼 등에서처럼 시청각적 영상물의 경우라면 문자적 기술 보다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Yi, 1990). 덧붙여 온라인 실험의 특성상 자발적인 참여자에 대하여 설문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해 본 연구가 불가피하게 의도했던 일본 과거사 이슈들에 의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만 참여자들이 일본 업체를 상정한 설문 응답 자체에 반발해 참여를 회피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최근 연구들 중에는 정치적 이슈 노출에 대한 효과가 실제 개인 의사결정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단지 일정 기간 동안만 영향력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총기 규제를 공개적으로 지지(gun control activism)하는 월마트, 스타벅스, 디스, 리바이스, 겐 등 미국 내 146개 기업 5724개 지점에 대한 빅데이터 연구에 따르면(Hou & Poliquin, 2023), 소비자에 대한 정치적 이슈의 영향력은 10주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위치 정보를 이용한 지점 내 집객 패턴 비교 분석 결과, 해당 기업의 총기 규제 지지 메시지가 공표된 직후 보수적(conservative) 소비자들의 반발로 총 집객 인원이 5%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영향은 4주 후 3% 이하로 축소되었으며 10주 후에는 원상 복귀 되었고 이로 인한 연 매출 손실은 평균 0.2%에 불과했다. 즉 총기 규제와 관련된 정치적 소비 행동은 단지 짧은 기간만 유효할 뿐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활동에 실질적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한 맥락에서, 메타(구 페이스북)와 인스타그램을 통한 최근 대규모 시계열 실험 분석에 따르면, 기존 통념과는 달리 플랫폼 기업들의 미디어 노출 및 기사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Gonzalez-Bailon et al., 2023). 다시 말해 자신과 유사한 정치적 성향의 미디어 및 기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알고리즘에 노출된 집단과 그러한 추천 기능 없이 중립적 알고리즘이 적용된 집단 사이에, 정당에 대한 투표나 대통령 후보 선호 태도 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나 시계열적 변화가 보고되지 않았다.

상기의 연구들은 과거사 프라이밍이 직장 내 기술 도입 의사결정 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본 연구의 분석과 일맥상통하며,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와 의사 역시 외부 인자에 의한 프라이밍에 의해 쉽사리 좌지우지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고 일관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관련하여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일본 과거사와 같은 정치적 이슈로 촉발된 정치적 소비 경향의 반감기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준실험설계(quasi experimental) 방식을 채용하여 일본 과거사와 관련된 특정 사건이나 사회적 파장 전후 정치적 소비 패턴의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관찰하는 연구는 해당 주제에 대한 매우 가치 있는 관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유사 사안에 대한 국가, 지역, 정치 성향, 세대 간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 또한 가치 있는 연구 주제일 것이다. 둘째로 개인적 차원에서 정치적 소비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과연 조직 내 업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동일한 정도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행동을 취하는지 살펴보는 연구 또한 의미가

를 것으로 제한된다. 예컨대 일본 파견이나 업무 출장에 있어 이를 기피하려는 직원 태도/행동과 그들의 정치적 소비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거나, 최고 경영진(top management team)의 정치적 성향과 그 조직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CEO의 정치적 성향의 유사성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는 연구 등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향후 연구에서는 프라이밍의 빈도, 형식, 노출 시간, 수준 등을 다양하게 적용시킨 보다 세밀한 실험 설계를 고려하기를 제안하며 포커스 그룹을 통한 심층 인터뷰 기법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심화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황상현과 이진영, 2022).

끝으로 보호동기이론(PMT)의 타당성 및 확장성이 재확인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안 취약성 지각을 매개변수로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한국과 중국 표본 모두에서 보안 취약성 지각은 정보 침해 경험과 CCTV 도입 신뢰 간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이는 이론적 및 문헌적으로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는 일관된 결과이다(Bansal et al., 2015; Herath & Rao, 2009; Hwang et al., 2023; McCaughey et al., 2017). 더욱이 앞서 언급한 점화효과의 부재와 관련지어 볼 때, 직장 내 CCTV 도입과 같은 결정은 과거사 이슈 등 정서적 외부 인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촉발되기보다, 시스템 보안성 및 사생활 유출에 대한 안전성 등 해당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에 더 가까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를 통해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점화효과가 실증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기술 도입 의사결정 과정의 인지적 복잡성과 PMT의 이론적 타당성 및 강고함을 방증해주는 가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용적 시사점

실용적 차원에서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정책 결정자들과 조직 관리자들은 조직 내 기술 도입 결정 시 외부 촉발 이슈에 끌려 다니기보다 조직 구성원의 총의와 합리적 결정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중매체의 보도나 대량 공유되는 소셜미디어들은 대중적 감정을 자극하고 때로 매우 격렬한 사회적 반향을 촉발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듯이 대중적 감정 반응이 항상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 및 의사와 상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는 조직 의사 결정 상황에서 균형 잡힌 정보와 공정한 내부 절차를 기반으로 한 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조직 내 CCTV 도입 시 직원들의 보안 우려 완화 측면에서, 사전 의견 수렴은 물론 사후 운영 과정에서도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위험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사내 소통이 필요함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기업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절차일 뿐만 아니라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실무 차원에서도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될 핵심적 고려사항이다. 가령 CCTV로 촬영된 영상에 대한 명확한 사용 근거와 공개 기준 제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 발생 시 체계화된 대응 매뉴얼의 확립, 저장 자료에 대한 암호화 적용과 엄격한 망 접근 제어 및 위 모든 과정에 대한 투명한 사내 정보 공개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의 이러한 보안성 확보 노력에 대한 의견 수렴과 의사소통을 지속함으로써 CCTV와 관련된 구성원들의 이유 있는 불안과 염려를 불식시키는 실무적 노력 또한 주효할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는 아래와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횡단 연구의 특성상 한국과 중국 표본으로부터 자기보고형 설문을 통해 동시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동일방법편이 이슈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최성원, 2021). 둘째 본고에서 제시한 연구 모형과 다른 분석 모델들의 설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본고에 포함되지 않은 보안 기술 자기효능감, 사생활 침해 위험 민감성, 내재화된 기업문화 등 제3변수가 모델에 추가됨에 따라 모형이 영향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술 프라이밍은 수행 용이성과 비용 효익 면에서 학술 연구 수행자들에게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본 과거사 보도나 영상들은 수많은 언론 및 무수한 SNS 채널을 통해 시청각 콘텐츠의 형태로 배포 및 소비 되는 경우가 흔하며 따라서 기술 프라이밍과 비교 시 월등히 강하고 자극적인 촉발 효과를 보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휘발성이 다분한 주제인 일본 과거사 관련 반일 감정을 소재로 설문이 진행됐기에 개인정보 취득에 있어 매우 조심스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분석 시 의미 있었을 수도 있는 개인별 정치 성향, 교육 수준, 경제 수준 등 자세한 인구통계적 변수의 세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프라이밍 절차가 시도되기를 제안하는 바이며 참여자들의 인구통계적 프로파일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패널 설문이나 질적 면담 방법론의 사용 또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고형석 (2003), “가상공간과 개인정보보”,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3(2), 37-64.
- 김경규·류성렬·김문오·김효진 (2009), “모바일 웹 브라우징 서비스의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영향”,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16(1), 149-168.
- 김상현·박현선 (2013), “프라이버시 보호인식 및 보호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프라이버시 침해경험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3(4), 79-105.
- 김용복 (2013), “일본 우경화, 한일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과거사 갈등과 영토분쟁”, *경제와 사회*, 99, 36-62.
- 김종기·김상희 (2013), “온라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대한 연구: 프라이버시 역설 관점에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3(1), 41-64.
- 나윤규 (2010), “확장된 기술수용모형(ETAM)을 이용한 인터넷 쇼핑물 패션상품 구매행동 연구: 지각된 가치와 위험 및 신뢰의 영향을 중심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0(3), 27-49.
- 박용완·김희영 (2016), “스마트폰 분실 위험과 경쟁 제품에 대한 점화(priming)가 모바일 결제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5(3), 849-868.
- 반현·최원석·신성혜 (2004), “유권자의 투표 선택과 뉴스 미디어의 점화효과: 17 대 총선의 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8(4), 398-443.
- 손승혜·최윤정·황하성 (2011),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한 초기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채택 행동 연구”, *한국언론학보*, 55(2), 227-251.
- 양승호·황윤성·박재기 (2016),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에 의한 핀테크 결제서비스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 *경영경제연구*, 38(1), 183-209.
- 이선민·전승우 (2022), “진보와 보수, 소비자 불매운동을 향한 서로 다른 시선: 노재팬 불매운동에 관한 신문 기사 프레임 분석”, *소비문화연구*, 25(3), 37-56.
- 이원덕 (2005), “한일 과거사 갈등의 구조와 해법 모색”, *세계지역연구논총*, 23(2), 197-220.
- 이용규 (2003), “보안에 대한 우려와 거래 파트너가 인터넷 बैं킹 사용에 미치는 영향: 확장되고 수정된 기술수용모형”, *대한산업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2003(5), 44-52.
- 이정기·최민음·박성복 (2012), “대학생들의 신문 이용동기와 기술수용모델 변인이 유료 모바일 뉴스 콘텐츠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경제와 문화*, 10(3), 129-172.
- 장기영 (2017), “안보위협이 과거사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관한 국내여론 분석”, *국제정치논총*, 57(4), 45-73.
- 장두영·이충기 (2020), “COVID-19 위협인식과 건강의식이 보호동기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9(7), 191-208.
- 장영일·정유수 (2018), “기술수용모형(TAM)을 통한 암호화 화폐 투자요인 분석”, *e-비즈니스연구*, 19(2), 139-158.
- 정보희·김한규 (2016), “소비자의 지위추구동기가 자국 브랜드 제품선택에 미치는 영향: 애국심 점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마케팅논집*, 24(1), 125-144.
- 조은희·조성겸 (2013), “사회조사에서 사진자료의 점화효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5), 126-134.

- 조재희 (2014), “건강관련 앱의 지속적 이용에 대한 인지적·사회적 요인: 사회적 영향을 포함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TAM II)을 중심으로”, *홍보학 연구*, 18(1), 212-241.
- 최성원 (2021), “동일방법편의 확인 및 대응을 위한 CFA 마커 테크닉의 고찰과 용례”, *경영교육연구*, 36(2), 245-265.
- 허수동 (2015), “일본 과거사 문제와 한중의 대응”, *일본문화연구*, 53, 431-447.
- 황상현·이진영 (2022), “패널자료를 활용한 대학생 증도탈락 결정요인 분석”, *아태비즈니스연구*, 13(3), 361-373.
- Abbas, F. A. M. and B. Al-Shargabi (2020), “Secure and lightweight encryption model for IoT surveillance camera”,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Trends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9(2), 1840-1847.
- Bansal, G., F. M. Zahedi and D. Gefen (2015), “The role of privacy assurance mechanisms in building trust and the moderating role of privacy concern”,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4(4), 624-644.
- Bargh, J. A., M. Chen and L. Burrows (1996), “Automaticity of social behavior: Direct effects of trait construct and stereotype activation on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230-244.
- Bryan, C. J., C. S. Dweck, L. Ross, A. C. Kay and N. O. Mislavsky (2009), “Political mindset: Effects of schema priming on liberal-conservative political posi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4), 890-895.
- Dhagarra, D., M. Goswami and G. Kumar (2020), “Impact of trust and privacy concerns on technology acceptance in healthcare: An Indian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141, 104164.
- Dinev, T. and P. Hart (2006), “An extended privacy calculus model for e-commerce transaction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7(1), 61-80.
- Doberstein, C., E. Charbonneau, G. Morin and S. Despatie (2022), “Measuring the acceptability of facial recognition-enabled work surveillance camera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Public Performance and Management Review*, 45(1), 198-227.
- Floyd, D. L., S. Prentice-Dunn and R. W. Rogers (2000), “A meta-analysis of research on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2), 407-429.
- Glidden-Tracey, C. and A. K. Greenwood (1997), “A validation study of the Spanish Self-Directed Search using back-translation procedur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1), 105-113.
- Gonzalez-Bailon, S., D. Lazer, P. Barbera, M. Zhang, H. Allcott, T. Brown and J. A. Tucker (2023), “Asymmetric ideological segregation in exposure to political news on Facebook”, *Science*, 381(6656), 392-398.
- Granic, A. and N. Marangunic (2019),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 educational context: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50(5), 2572-2593.
- Herath, T. and H. R. Rao (2009), “Protection motivation and deterrence: A framework for security policy compliance in organisation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18(3), 106-125.
- Hermans, D., J. De Houwer and P. Eelen (2001), “A time course analysis of the affective priming effect”, *Cognition and Emotion*, 15(2), 143-165.
- Hou, Y. and C. W. Poliquin (2023), “The effects of CEO activism: Partisan consumer behavior and its dur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4(3), 672-703.
- Hwang, Y., H. Shin, K. Kim and S. H. Jeong (2023), “The effect of augmented reality and privacy priming in a fashion-related app: An application of technology acceptance model”,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6(3), 214-220.
- Hyun, K. D., J. Kim and S. Sun (2014), “News use, nationalism, and Internet use motivations as predictors of anti-Japanese political actions in China”,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4(6), 589-604.

- Ifinedo, P. (2012), "Understanding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olicy compliance: An integr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Computers and Security*, 31(1), 83-95.
- Josiassen, A., F. Kock, A. G. Assaf and A. Berbekova (2023), "The role of affinity and animosity on solidarity with Ukraine and hospitality outcomes", *Tourism Management*, 96, 104712.
- Klein, A. and H. Moosbrugger (2000),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of latent interaction effects with the LMS method", *Psychometrika*, 65(4), 457-474.
- Kyrogrou, G. and M. Henn (2022), "Pulled in and pushed out of politics: The impact of neoliberalism on young people's differing political consumerist motivations in the UK and Greec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43(2), 279-294.
- Lai, P. C. (2017), "Security as an extension to TAM model: Consumers' intention to use a single platform E-Payment", *Asia-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Research and Innovation*, 13(3), 110-119.
- Lee, Y. (2011), "Understanding anti-plagiarism software adoption: An extended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erspective", *Decision Support Systems*, 50(2), 361-369.
- Le, T. and J. Zhang (2022, August 10). "From a History Problem to a History of Problems", *Tokyo Review*.
- Little, T. D., J. A. Bovaird and K. F. Widaman (2006), "On the merits of orthogonalizing powered and product terms: Implications for modeling interactions among latent variabl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3(4), 497-519.
- Martin, K. and R. E. Freeman (2003), "Some problems with employee monitoring", *Journal of Business Ethics*, 43(4), 353-361.
- Maslowsky, J., J. Jager and D. Hemken (2015), "Estimating and interpreting latent variable interactions: A tutorial for applying the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s meth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9(1), 87-96.
- McCaughey, J. W., I. Mundir, P. Daly, S. Mahdi and A. Patt (2017), "Trust and distrust of tsunami vertical evacuation buildings: Extending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to examine choices under social influ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24(4), 462-473.
- Minton, E. A., T. B. Cornwell and L. R. Kahle (2017), "A theoretical review of consumer priming: Prospective theory, retrospective theory, and the affective-behavioral-cognitive model", *Journal of Consumer Behaviour*, 16(4), 309-321.
- Neilson, L. A. (2010), "Boycott or buycott? Understanding political consumerism", *Journal of Consumer Behaviour*, 9(3), 214-227.
- Patel, K. J. and H. J. Patel (2018), "Adoption of internet banking services in Gujarat: An extension of TAM with perceived security and social influ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ank Marketing*, 36(1), 147-169.
- Ping, R. A. (1996), "Latent variable interaction and quadratic effect estimation: A two-step technique us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9(1), 166-175.
- Polatoglu, V. N. and S. Ekin (2001),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Turkish consumers' acceptance of Internet banking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Bank Marketing*, 19(4), 156-165.
- Radel, R., P. Sarrazin, P. Legrain and L. Gobance (2009), "Subliminal priming of motivational orientation in educational settings: Effect on academic performance moderated by mindfulnes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4), 695-698.
- Ratten, V. (2015),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online behavioural advertising knowledge, online privacy concerns and social networking using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social cognitive theory",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Management*, 6(1), 25-36.
- Ravid, D. M., J. C. White, D. L. Tomczak, A. F. Miles and T. S. Behrend (2023),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electronic performance monitoring on work outcomes", *Personnel Psychology*, 76(1), 5-40.

- Reynolds, I. and S. Kang (2023, August 18). "Why South Korea-Japan Ties Are Plagued by History", *Bloomberg*.
- Rogers, R. W. (1975), "A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of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Psychology*, 91(1), 93-114.
- Schoorman, F. D., R. C. Mayer and J. H. Davis (2007),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Past, present, and fut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2(2), 344-354.
- Sengupta, A. (2022), "Perception and purchase behavior of young Indian consumers towards Chinese products under the backdrop of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rivalry", *Journal of Public Affairs*, 22(1), e2388.
- Stockmann, D. (2010), "Who believes propaganda? Media effects during the anti-Japanese protests in Beijing", *China Quarterly*, 2010(202), 269-289.
- Thiel, C. E., J. Bonner, J. T. Bush, D. T. Welsh and N. Garud (2023), "Stripped of agency: The paradoxical effect of employee monitoring on deviance", *Journal of Management*, 49(2), 709-740.
- Venkatesh, V. and F. D. Davis (2000), "A theoretical extens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ur longitudinal field studies", *Management Science*, 46(2), 186-204.
- Wallace, J. L. and J. C. Weiss (2015), "The political geography of nationalist protest in China: Cities and the 2012 anti-Japanese protests", *China Quarterly*, 2015(222), 403-429.
- Wang, E. S. (2022), "Contested fandom and nationalism: How K-Pop fans perform political consumerism in China", *Global Media and China*, 7(2), 202-218.
- Warnick, B. (2007), "Surveillance cameras in schools: An ethical analysis", *Harvard Educational Review*, 77(3), 317-343.
- Wong, W. H. and W. Y. Mo (2019), "A study of consumer intention of mobile payment in Hong Kong, based on perceived risk, perceived trust, perceived security and Technological Acceptance Model", *Journal of Advanced Management Science*, 7(2), 33-38.
- Yang, Q., Q. Mei, C. Fan, M. Ma and X. Li (2023), "Environment-aware worker trajectory prediction using surveillance camera in modular construction facilities", *Buildings*, 13(6), 1502.
- Yi, Y. (1990), "Cognitive and affective priming effects of the context for print advertisements", *Journal of Advertising*, 19(2), 40-48.
- Yoo, J. J. and W. N. Lee (2016), "Calling it out: The impact of national identity on consumer response to ads with a patriotic theme", *Journal of Advertising*, 45(2), 244-255.
- Zhao, L. and H. Xiaoyi (2021), "An analysis of the anti-Japanese national united front and its formation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game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and Cultural Studies*, 4(1), 59-61.
- Zhou, H., X. Xing and Z. Lu (2022), "A study on the effect of user experience of fitness APP on product trust and purchase intention", *Asia Pacific Journal of Business*, 13(3), 1-18.

Appendix

A. 기술 도입 신뢰

1. 나는 직장 내 CCTV 기록 관리에 있어 선정된 공급 업체를 신뢰한다.
2. 나는 직장 내 CCTV 기록 관리에 있어 선정된 공급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생각한다.
3. 나는 직장 내 CCTV 기록 관리에 있어 선정된 공급 업체가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

B. 정보 침해 경험

1. 과거에 CCTV로 인해 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
2. 과거에 CCTV로 인해 나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
3. 과거에 나와 관련된 CCTV 기록이 유출된 경험이 있다.

C. 보안 취약성 지각

1. 나는 평소 직장 밖에서도 CCTV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2. 나는 평소 직장 밖에서도 CCTV를 통한 사생활 침해가 큰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
3. 나는 평소 직장 밖에서도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를 느끼고 있다.